

TV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50 굿모닝! 채널A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7 50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50 인강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8 50 웰컴 투 시월드(재)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활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너라서 좋아>
9 50 신문으로 보는 세상	30 KBS 뉴스	00 TV 소설 <사랑이 사랑이> 40 어유만만	30 MBC 뉴스 55 제4344주년 개천절 경축식	10 좋은 아침
10 40 펠릭스(재) 50 이영돈 PD, 논리로 풀다(재)	00 제 4344주년 개천절 경축식 45 아름다운 사람들(재) 55 TV동화 행복한세상(재)	50 추석특집 <원실의 부활 - 왕세자 책봉사건(재)>	30 앙코르 MBC 스페셜 <싸이 GO - 세계는 강남스타일>	30 추석 특선영화 <김종욱 찾기>
11 00 교실이야기 55 바른말고운말		35 한기위 특집(재) <시간을 달리는 TV 스페셜>		
12 00 채널 A 뉴스 10 여행이 좋다(재) 40 박명수의 돈의 맛(재)	00 KBS 뉴스 12 10 역사스페셜 <1905년 독도 감치의 증언>	00 수목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재)>	55 MBC 뉴스	35 SBS 뉴스 45 SBS 대기행 <대중스페셜(재)>
1 50 이연경의 세상만사 1~2부	00 KBS경작선 <공주의 남자(재)>		05 무한도전 스페셜	50 세상발견 유레카
2 00 KBS 뉴스 10 국군의 날 특집다큐 <육군 훈련소 51인의 외인소대(재)>		10 불후의 명곡(재) <전설을 노래하다 스페셜>	35 창사 51주년 특별기획 <마의(재)>	
3 50 그 여자 그 남자(재)	10 글로벌 성공시대 세기의 리더 <UN 사무총장 반기문(재)>	40 추석특집 가족의 품격 <풀하우스(재)>		00 KBC스포츠 2012 프로축구 <강주vs대전>
4 50 200회 특집 박종진의 쾌도난마	00 우리시대의 명인 <노름마치 제4편> 10 추석특집 다큐 <아버지의 지계(재)>	50 추석기획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재)		
5 00 KBS 뉴스 1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도그래피			15 MBC 뉴스 25 광희&선화 우리결혼했어요	00 한국의 숭고스페셜 35 추석특집 정글의 법칙(재)
6 00 신기한 동물나라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0 생생 정보통 1~2부	50 특집 매직쇼크 <2부 멘탈리스크>	
7 4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00 KBS 뉴스7 20 스카우트	45 일일시트콤 <덕지고 패밀리>		20 일일드라마 <크레디트 당산>
8 50 이영돈 PD의 X파일(재)	25 일일연속극 <별도 달도 따줄게>	20 오강만족 세상엔 맞았다 <김민희의 터키> 50 비터민	15 일일연속극 <그대없이 웃살이>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한밤의 TV연예
9 00 KBS 뉴스9		55 수목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	55 수목미니시리즈 <아랑서도전>	55 드라마스페셜 <아름다운 그대에게>
10 00 뉴스A	00 환경스페셜 50 아름다운 사람들			
11 00 분노왕	00 KBS 뉴스라인 40 수요기획	15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15 짝
12 10 200회 특집 박종진의 쾌도난마(재) ①: 20만 포청천 2012	25 KBS 뉴스 35 클래식 오디세이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 24 45 MBC 플러스 특선 <대학가오제 -유지선의 탄생>	35 나이트라인 45 칼라라 영화선책(재)

'도둑들' 1302만명 관람... 최고 흥행작 등극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이 2일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으로 올라섰다. '도둑들'의 투자배급사인 쇼박스 '도둑들'이 2일 오후 2시 기준 누적관객수 1302만 393명을 기록하며 2006년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세운 이 부문 기록 1301만9740명을 넘어서 한국영화 최고 흥행작이 됐다고 밝혔다. 개봉 70일 만의 기록이다. 6년 전 '괴물'은 106일 만에 1301만여 명을 모았다. 아직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도둑들'의 기록은 영진위 통계(1일 현재 1296만 7819명)와는 5만명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쇼박스는 "괴물 역시 우리가 투자배급사였고 영진위 통계 자료가 실시간 데이터에 비해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점에서 '도둑들'이 2일 한국영화 흥행기록을 경신했다는 사실에 오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25일 개봉한 '도둑들'은 열흘 만에 500만을 넘어선 데 이어 22일 만에 1000만 관객 고지에 들어서며 폭발적인 흥행력을 과시했다. 현재 남아있는 스크린은 전국 76개다. 수익에서는 10월1일 기준 누적매출 935억 6196만5000원(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기준)을 기록했다. '괴물'의 누적매출액은 785억 원이었고 '해운대'는 총 819억 원이었다. 역대 국내에서 개봉한 영화 중 최대 관객 기록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바타'(2009)의 1362만4328명이다. '아바타'는 3D 개봉이라는 특수성으로 매출액에서도 1284억 원이라는 뛰어난 기록을 세웠다. /연합뉴스

90년대 후반 최고의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한국영상자료원 네티즌 설문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를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선보인 한국영화 중 최고의 영화로 꼽은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영상자료원은 지난달 12~20일 홈페이지를 방문한 네티즌 1065명(중복선택 가능)을 대상으로 '1990년대 후반 개봉한 한국 영화 중 다시 보고 싶은 영화'를 묻은 결과 '8월의 크리스마스'(1998)가 348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고 2일 밝혔다.

2위는 이창동 감독의 '초록물고기'(1997, 264표), 3위는 이정향 감독의 '미술관 옆 동물원'(1998, 258표)이 차지했다. 이어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1999), 김기덕 감독의 '파란대문'(1998), 장윤현 감독의 '접속'

(1997), 김기덕 감독의 '악어'(1996),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 김기덕 감독의 '야생동물보호구역'(1997), 홍상수 감독의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1996) 순으로 4~10위에 랭크됐다. 올해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주인공인 김기덕 감독이 3편을 톱 10에 올려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0월 3일(음 8월 18일 丁酉)
<p>子 36년생 상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48년생 경험자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낫다. 60년생 다각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72년생 신변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한다. 84년생 주변인과 어울렸을 때 효과가 크다. 행운의 숫자 : 56, 22</p>	<p>午 42년생 마음을 비웠을 때 더 큰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54년생 생방이 주고받는 관계야말로 행복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66년생 만사여의 하도다. 78년생 상대에게 허점을 보인다면 발목을 잡히게 되어있다. 행운의 숫자 : 43, 29</p>
<p>丑 37년생 작은 것을 잃을지언정 큰 것을 얻어라. 49년생 여건의 변화로 재물이 생길 수 있다. 61년생 준비하는 정도에 따라 성취도가 다르다. 73년생 서로 이해하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85년생 단단속에 신경을 써야겠다. 행운의 숫자 : 84, 62</p>	<p>未 43년생 초기에 승세를 잡지 않으면 갈수록 힘들어진다. 55년생 처음에 마음먹었던 바를 변경할 수 있으리라. 67년생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79년생 급상승의 계기를 마련하겠다. 행운의 숫자 : 68, 88</p>
<p>寅 38년생 분장으로 인해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다. 50년생 말을 아낀다면 재 복을 다 차지할 수 있다. 62년생 잡다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핵심 사안에 매진하자. 74년생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하루다. 행운의 숫자 : 72, 06</p>	<p>申 44년생 상대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56년생 단단히 각오한다면 의외로 심겁게 끝날 수도 있다. 68년생 열린 마음으로 임한다면 쉽게 타협점을 찾으리라. 80년생 내색할 필요는 없었다. 행운의 숫자 : 80, 53</p>
<p>卯 39년생 기대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어 공허감을 느껴겠다. 51년생 원래 자신과 인연이 없는 것이었느니라. 63년생 급히 서둘러야 겨우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다. 75년생 지난날에 쌓았던 공이 빛을 보게 될 수다. 행운의 숫자 : 87, 35</p>	<p>酉 45년생 상대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 57년생 지루할 것이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69년생 새로운 일에 행운이 따를 것이니 잘 살펴보자. 81년생 공강대를 형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다. 행운의 숫자 : 70, 92</p>
<p>辰 40년생 인연의 번거로움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52년생 먼 곳으로부터 희소식을 접하리라. 64년생 현실과 이상을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다. 76년생 길 다투고 속 다른 주변인의 방해를 주의 하자. 행운의 숫자 : 16, 45</p>	<p>戌 46년생 자금을 주지 않는다면 정제할 수밖에 없다. 58년생 취약했던 바를 발본색원해야 할 때다. 70년생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면 빨리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82년생 소박한 경제적 이익과 영예로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94, 81</p>
<p>巳 41년생 속도를 조금만 조절할 수 있다면 급상승한다. 53년생 어떠한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정신만은 차리고 있어야 한다. 65년생 객관적인 자기 성찰만이 활로를 개척할 것이다. 77년생 반드시 시 이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33, 75</p>	<p>亥 47년생 확인하는 습관과 자세가 절실하다. 59년생 세월 속에 묻어 둔 과거의 일을 수습하게 될 것이다. 71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무난한 법이다. 83년생 원만한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66, 12</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EBS	
06:00 극한직업 <식육처리가능사 1부>	10:00 부모 <우리 아이 자존감 키우기>
07:00 성공! 인생 후반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김기영의 요리비결>
07:00 척척복록 차림단	11:20 세계대미기행 <김기영의 요리비결>
07:30 꼬마 펭귄 친구	12:00 EBS 정오 뉴스
07:45 꼬마버스 타요	12:10 역사특강 <한국과 일본 - 저항과 모색>
08:00 뽀뽀뽀 유치원 1~3	13:00 EBS 다큐프라임 <금융지능은 있는가?>
08:30 뽀뽀뽀 뽀로로	14:00 지식채널e
08:45 출구는 고품종	14:05 함께하는 한국어
09:00 방구대장 뽀뽀이	14:45 영어유치원 오 기버기버
09:10 디보와 노래고사	
09:15 뽀뽀뽀 눈보리	
09:30 달리아 카카	
09:40 클로이의 요술웃장	

EBS플러스1	EBS플러스2
00:00 2014 대비수능 스티트 <김철환의 외국어 B형>	07:00 한경 TESAT 대비 강좌
00:50 <윤연주의 영어 B형>	07:30 EBS 생생영어
01:4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박정호의 물리 II>	08:00 매경 TEST 시험 대비 강좌
02:30 <윤정환의 외국어>	08:30 실용수학능력검정 시험대비강좌
03:20 <이병희의 지구과학 II> (1)	09:10 EBS TV 중 1 2학기 <영어>
04:10 <이병희의 지구과학 II> (2)	09:50 <과학> 17:20 초등개념잡기 <국어>
05:00 <김현준의 화학 II> (1)	10:30 EBS TV 중 2 2학기 <영어>
05:50 <김현준의 화학 II> (2)	11:10 <과학> 18:40 <국어>
06:40 2012 토크쇼 <김승희의 물리와 사상>	11:50 EBS TV 중 3 2학기 <영어>
07:30 <최선복의 지구과학 I>	12:30 <사회> 20:40 EBS TV 중 2 2학기 <비문학(재)>
08:20 2014 대비 수능 스티트 <정현경의 수학 II>	13:20 친절한 수학 익힘책 5-2
09:10 <박숙녀의 적분과 통계>	14:00 실험관찰 비법노트 5-2
	14:30 EBS 클리닉
	14:50 뽀뽀뽀 영어
	15:10 사회가 속속!
	20:00 EBS 생생영어(재)

굿모닝 잉글리쉬	한자이야기	니하오 풍구위	오하오우 니혼고
<p>Are you on a diet? 다이어트 중이세요?</p> <p>A : Do you want a doughnut? B : No, thanks. I'm trying to lose weight. A : Are you on a diet? B : Yes, I think I'm a little bit fat. I'm afraid of gaining weight.</p> <p>A : 도너츠 드시겠습니까? B : 아뇨, 고마워요. 전 지금 체중을 줄이고 있거든요. A : 다이어트 중이세요? B : 네, 제가 약간 뚱뚱한 것 같아서요. 전 몸이 불어나는 것이 두려워요.</p> <p>* 저는 살을 빼고 싶어요. = I want to become slim. = I want to reduce weight. *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 What is your weight?</p>	<p>曾參殺人(증삼살인) 일찍 죽, 석 삼, 죽일 살, 사람 인</p> <p>증삼살인(曾參殺人)이란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는 뜻으로,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이라고 말하는 자가 많으면 진실이 뒤흔을 비유한 말이다. 증자(曾子)가 노(魯)나라의 비(費)라는 곳에 있을 때 이웃의 사람 중에 증자와 이름과 성이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살인을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증자의 어머니에게 달려와 말했다. "증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증자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다." 하고는 태연히 짜고 있던 베를 계속 짜다. 얼마 후, 또 한 사람이 뛰어들어와 말했다. "증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증자의 어머니는 이번에도 미동도 않고 베를 계속 짜다. 또 얼마 후, 어떤 사람이 활짝이며 뛰어들어와 "증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자 증자의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베를 북을 던지고 담을 넘어 달렸다. 세 사람이 그를 의심하며 말하니, 현명한 증자를 믿는 어머니조차도 아들을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p> <p>[출전] 『전국책(戰國策)』 「진책(秦策)」</p>	<p>三只手 sān zhī shǒu 손이 세 개면...</p> <p>석 삼과 손 수는 잘 아실테고, 가운데 '只' - 이 글자는? 이 글자는 '단지(단지)'라고 할 때 쓰이는 지(只) 자로, 그리고 또 隻(세한마리 칠, 외척 칠)의 간체자로 쓰입니다. 중국어에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 물건 셀 때 쓰는 양사(우리말의 마리, 자루, 병 등의 기능)로서 마리아 쌍으로 된 것의 각각 또는 두 개를 셀 때 사용되는 글자입니다. '三只手'는 손이 세 개라는 말인데 보통 사람은 손이 두 개 일터인데 손이 세 개인 사람은 바로 소매치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말의 소매치기의 어원을 보니 옛날 옷의 소매 속에 돈이나 물건을 넣고 다녔는데 그 소매를 쳐서 물건을 꺼내가진다고 소매치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p>	<p>なにも記憶がないそうだって。 아무 기억도 없다</p> <p>A : この頃、交番が酒を飲んで暴れる人で困っているそうよ。 B : 交番の輩で横したり、警官を衝いたり、ちょっと酷いよ。 A : この前はクレインでパトカーをなげつぷしたりね。 B : 酒から醒めたら、なにも記憶がないそうだって。</p> <p>A : 요즘 파출소가 술 마시고 날뛰는 사람들로 곤란해 있네요. B : 파출소를 차로 부수고 경찰을 치고 쏘 심해요. A : 일전에는 크레인으로 경찰차를 집어던져 부수기도요. B : 술에서 깨면 아무 기억도 없네요.</p> <p>交番で暴れる 파출소에서 날뛰다 人で困る 사람으로 곤란하다 酷いよ. 심하다 酒から醒める 술에서 깨다</p>
<p><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p>	<p><대능교육> www.daeneungedu.com ☎ 02-2634-2007</p>	<p><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아스카일본어학원 강사 남궁경일> http://www.kjasuka.co.kr ☎ 232-1503</p>